

# 부모가 할 일

## What Parents Should Do

에베소서 6: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8월 21일 연합예배 설교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 양육의 책임

“아버지야” 하고 불렀는데 그에게 찬양예배 시간에도 살핀 것처럼 “어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아, 이 말이지요. 그런 다음 끝에 보니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학교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교회에 맡겨둘 일도 아닙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동양에서는 교육의 책임이 사회나 국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정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지만 부모들도 내 아이를 서당이나 학교가 맡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 보면 아직도 정부나 학교가 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정하고 부모들도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그냥 따라갑니다. 요즘은 대안학교 같은 게 생겨서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큰 흐름은 아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학교가 있고 여러 가지 법도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원리와 방법은 부모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내 가치관과 맞는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접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거지요. 교사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필수 과정만 제대로 가르치면 교육의 원리나 방법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나 부모가 정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거 반대하는 부모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 전에 반드시 집으로 편지를 보내 부모의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는 빼 주시오 하면 그 아이는 그 수업에서 제외시킵니다. 또 아이 이름을 학교 주소록에 넣을 건지, 아이 얼굴을 학교 관련 사진이나 비디오에 넣어도 되겠는지 그런 것도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합니다. 자녀양육은 부모 책임이라는 사상에서 나온 거지요.

### 성나게 말라

자녀 양육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보니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면 안 되고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노엽게 하는 건 말 그대로 성나게 하는 겁니다. 성, 곧 분노는 지적인 감정이라고 지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상대가 잘못되었다 판단되면 성이 납니다. 자녀가 분노한다면 그건 아이가 보기에 부모가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분노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죄와 관련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아직 어립니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한 그대로 분노의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녀의 분노 속에는 어른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떨 때 화를 냅니까? 아이 때는 바라는 게 많지만 해 달라는 것 안 해 준다고 무조건 화내지는 않습니다. 해 줄 명분도 있고 또 해 줄 능력이 되는데도 안 해 주면 화를 냅니다. 귀찮아서 안 해줄 수도 있고, 괜히 다른 일로 기분이 나빠서 아이한테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괜히 아이 앞에서 권위 세운다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 자녀가 화가 나지요. 자녀를 꾸중할 때도 아이가 성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안 했거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잘못했을 때 꾸중하면 아이가 기분은 언짢아도 성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능력이 안 되는 일을 안 했다고 욕박지른다면 성이 나게 마련입니다.

또 어른이 자기한테 성을 내면 아이도 성을 냅니다. 분노는 교만에서 나오는 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성을 내

면 자녀도 사람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금방 따라 성을 냅니다. 아이가 정말 잘못된 경우라면 부모가 성을 내도 아이가 같이 성내지 않겠지만 부모가 잘 몰라서 그릇 성을 낼 경우 자녀는 억울할 것이고 화도 날 겁니다. 내가 자녀한테 화를 낸 다음 틀렸다는 걸 뒤늦게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사과하면 우리 자녀 분들께서도 노여움을 거두십니다. 황금률을 기억해야 됩니다.

## 주의 교양과 훈계

아이를 성나게 하면 안 되고 대신 뭘 해야 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교양은 가르친다는 말도 되고 (딤후 3:16) 벌을 준다는 말도 됩니다 (히 12:5-11). 훈계는 본보기라는 뜻도 되고 (고전 10:11) 타이른다는 뜻도 됩니다 (딤후 3:10). 주의 교양과 훈계는 바로 가르치는 일과 혹 잘못 할 경우 꾸중해 바로잡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교양과 훈계니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요 주님이 하시는 꾸중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이지요. 가르침의 원리와 방법을 다 주님 하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잘 압니다. 사랑이요 겸손이요 온유함입니다. 의요 진리요 거룩함입니다. 방법은 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11:29).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15).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참 어려운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통지르는 방법입니다. 성을 내는 거지요. 화를 내는 건 난 백 퍼센트 옳다고 과시하는 겁니다. 분노를 발하며 고통을 지르면서 아이만 혼내면 됩니다. 난 안 해도 됩니다. 분노는 모든 걸 면제시켜 줍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참 쉬운 방법이지요? 그래서 효과도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역효과가 납니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말 몇 마디 툭 던져 죄에 빠지게 합니다. 나는 멋대로 살면서 자녀에게 고통만 지르면 내 자녀도 마귀를 따라 갈 확률이 높습니다.

누구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난 빈둥거리면서 아이는 열심히 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내가 거짓말이나 하고 술수나 쓰면서 살고 있다면 아이한테는 정직하라는 말 아예 입 밖에 내지도 않는 게 낫습니다.

고통지르는 것과 비슷하게 효과가 있어 보이는 방법은 돈을 쓰는 방법입니다. 본을 보이려면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시간 아끼고 몸 아끼려고 돈을 씁니다. 세상살이 바쁘지요. 그래서 놀아주어야 할 시간에 대신 돈을 던져 줍니다. 돈으로 때우는 경우지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자녀들도 압니다. 돈이니까 자녀도 좋아하는 하지요. 하지만 돈을 자녀 몸에 아무리 발라도 사랑은 안 붙습니다. 사는 거 다 바쁘지요. 몸도 힘듭니다. 시간도 몸도 얼마나 중합니까? 하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걸 자녀에게 안 주는데 자녀가 어떻게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어렵도 없지요.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역효과가 납니다. 시간이나 노력 대신 돈을 쓰면 돈도 날리고 자녀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우리 자녀 역시 죄악의 본성을 마음에 지녔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해야 됩니다. 또 나 혼자 아무리 애쓰고 좋은 본 보이려고 발버둥을 쳐도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사람을 계속 만나고 갖가지 일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인생입니다. 다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또 한 해를 시작하며

이제 곧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작년 이맘때도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도도 여름방학이 끝나고 한 학년을 시작했는데 올해도 그렇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인생입니까? 아니지요. 아이들은 한 학년 높은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나사처럼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위로 올라갑니다. 학년도 올라가고 아이들의 인격도 성숙해집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 된 나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앞에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들 셋을 길러 보니까 자녀양육은 정말 어렵습니다. 공짜도 없고 쉬운 것도 없고 언제나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더 잘 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만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커가는데 부모 된 나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신앙교육만 해도 아이가 어릴 때는 교회에만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친구들과 놀면서 교회생활을 배웁니다. 조금 크면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그 친구를 만나 뭘 하는지 챙겨야 됩니다. 또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대학에 가면요? 더 챙겨야 되겠지요. 대학에 가면서 대개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 아이들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 아이를 맡기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후배 하나는 아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입학할 때 같이 왔습니다. 기숙사나 이런 것도 챙겼겠지요. 하지만 가장 신경을 쓴 건 교회였습니다. 저한테도 물어보고 전화도 여기 저기 하더니 주일날 한 교회를 정해 아이를 맡겨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교회 대학생들 또 대학생을 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제가 좀 더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을 어느 교회로 연결시켜 주셨는지 제가 좀 챙겨 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곳 목회자와 연락해서 도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양육은 교회 책임이 아니라 부모 책임이지만 교회에서는 사실 아이들은 다 우리 자녀요 어른이면 다 부모지요. 우리가 함께 저야 할 책임입니다.

## 생명의 자녀양육

전에 누굴 만났더니 자녀가 둘 다 아주 좋은 대학에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주면서 거기서 교회는 어딜 다니느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교회에는 못 나가요. 워낙 바빠서.....” 그랬습니다. 좋은 대학 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 성적도 잘 받았단니까 좋은 직장도 얻었겠지요. 그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것 두루 가지고 누리면서 잘 살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서 저도 늘 긴장이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내 자녀를 대상으로 연습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요.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한 학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부모된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신 말씀을 삶 가운데 더욱 잘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